횡단보도 주변에 가로수·전봇대·플래카드…

운전자 시야 가려 교통사고 부른다

광주 진월동 진아리채 삼거리 시설물 11개 병풍처럼 늘어서 주민들 대책마련 호소

■광주 남구 진월동 진아리채 앞 삼거리

광주시 남구 봉선동 진아리채 아파트 주변 횡단보도. 문성고 방면에서 광주대 방면으로 우회전할 경우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 가로등 등에 가려 우측의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우려가 높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역 일부 교차로 주변에 설치된 전봇대와 가로수 등 시설물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면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로수에 걸어놓는 현수막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적극적 수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최보학씨는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횡단보도 사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씨는 올린 글에서 "진제초교 1학년 학생이 광주시 남구 진월동 진아리채 아파트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해마다 두세번씩 초등학생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썼다.

그는 이어 "올해 진아리채 아파트 입주민 자녀 13명이 500m 떨어진 진제초교에 입학했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이 염려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 진아리채 아파트 앞 삼거리의 경우 횡단보도 주변 빼곡히 늘어선 시설물들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면서 보행자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장, 해당 횡단보도(길이 15m) 주변 인도에는 신호등 제어기 1대·가로수 2그루·전봇대 5개· 신호등 1개·가로등 2개 등 11개 시설물이 병풍처럼 둘러 세워져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이 시설물에 가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초등학생들을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점멸 신호로 바뀌면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변에서 만난 주민들은 "삼색 신호등으로 운영되는 출·퇴근시간 때에도 운전자 10명 중 7명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도로 주변에 진제초교를 포함한 효덕초교·불로초교·조봉초교·진남초교 등 5개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사용되는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게 주민들 입장이다.

가로수에 걸어놓는 현수막도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인도를 지나다니는 초등학생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수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보행로 주변에 세워진 시설물과 가로수에 걸어놓는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도로는 여기 뿐 아니다.

광주시 서구 양동 KDB생명빌딩 앞 횡단보도도 복개상가 주차장 진입 팻말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높다. 또 양동복개상가 태평교 방면에서 천변좌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신호등을 가려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음란물 단속되면 벌금 대신 내줄게"

광주경찰, 대형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회원들에 동영상 공유·수수료 1억2000만원 챙겨

15만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대형 음란 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8일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간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게 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양모(32·대전)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15만여 명이 가입된 음란사이트 '야XX'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을 공유하고, 이를 내려받기 위해 회원들이 현금을 포인트로 바꿀때 발생하는 수수료 약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 2010년 비슷한 방식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해외로 서버를 옮겨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게시판에 "피XX(경쟁 음란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해 사진을 캡쳐하면 포인트를 주겠다"며 디도스(DDOS·여러곳에서 동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 프로그램을 올려놓기도 했다.

또, 양씨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회원들이 접속한 IP를 정기적으로 초기화하는 한편, 게시판에 "단속되더라도 최대 200만원까지 벌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회원들을 선별해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경찰, 8촌 이내 친척 사건 못 맡는다

행동강령 개정

앞으로 경찰관은 8촌 이내 친족이 관련된 사건은 맡지 못하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온 '사건청탁 제로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사건 담당 회피 대상자 범위를 넓힌 내부 훈령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는 민법상 4촌 이내 친족이 사건 관련자인 경우 해당 경찰관은 직속상관이나 행동강령 책임자와 직무 회피 여부를 상담해야 했다. 상급자는 해당 경찰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담당자를 재배정한다.

그러나 바뀐 강령에서는 '4촌 이내'를 삭제하고 '친족'으로 뒤 직무 회피 대상자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에 해당한다. 혈족은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를, 인척은 형수, 매형 등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뜻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하고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눈먼 돈?…보조금 비리 3300명 적발

검·경, 1700억 부당지급 확인

검찰과 경찰이 사회에 만연한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3300여명이 170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지급받거나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 지급 분야 전반에 대한 공조 수사에 나서 3349명을 입건하고 이중 12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322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부당지급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은 1700억원 가량이다. 복지분야 부정수급액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177일 간 총 2737명을 입건해 31명을 구속하고 부정수급액 894억원을 적발했다. 검찰 역시 8월 23일부터 100일 간 집중단속에 나서 612명(96명 구속)이 806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비틀비틀' 바다 음주 운항 해마다 늘어

해경, 지난해 99명 적발

바다 음주 운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 한해만 100명에 달하는 음주운항 사범이 해경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에서 음주운항 중 해경에 적발된 이는 모두 97명에 달한다. 선박 음주운항 사범은 2011년 81명, 2012년 99명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선박 종류별로 보면 어선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선·부선 9건 ▲화물선 5건 ▲낚시어선 3건 ▲여객선 1건 순이었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의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모터보트 음주 처벌 강화

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 같은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처벌하던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또 5t 미만의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해수부는 입출항 신고소 등에 음주 측정기를 비치해 자율적으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게 하며 봄·가을 낚시 성수기에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음주단속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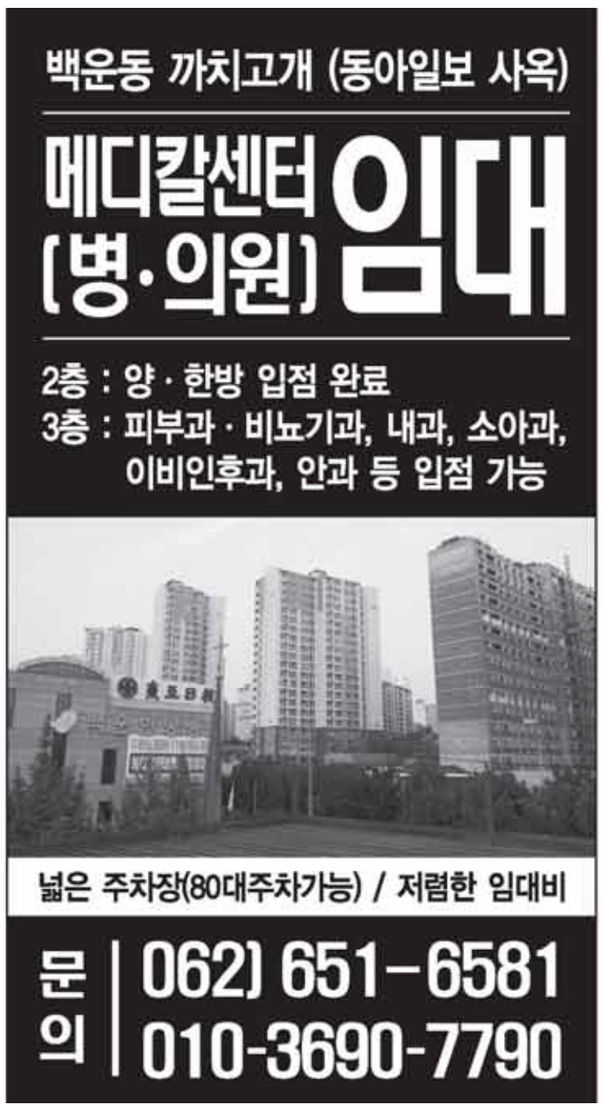
/연합뉴스

노약자석에 앉은 20대 훈계하다 경찰서행

쌍나팔

○…시내버스에서 노약자석을 차지한 20대 남성을 나무라며 멱살을 잡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54)씨는 지난 6일 밤 10시50분께 술에 취한 채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인근 시내버스를 탔다가 버스 안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신모(21)씨를 보고 시비,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젊은 사람이 다른 빈 자리가 많은데 노약자석을 차지하고 있어 나무라다가 술김에 손찌검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